

순교자 성월

연중 제 26 주일

제1독서 : 아모 6, 1-4

제2독서 : 1디모 6, 11-16

복 음 : 루가 16, 19-31

# 숲정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1디모 6, 12)

## 강론

###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부자는?

이상섭 신부/평화동 성당

내가 보는 세상에는 부자로 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가난하면서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 부자이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1.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소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물질적인 소유에 얽매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바라는 이웃과 하느님께 바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인색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웃과 하느님을 볼 수도 없고 재물을 나누지도 못한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못하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가난한 부자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성서에 나오는 축복받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는 부자요, 오늘 복음에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부자일 것이다.

2. 가난하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과 부자이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부자이면서도 참으로 부자답게 살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참으로 부자답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인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 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자이면서도 성서에 나오는 축복받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며,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본당 교우들이 성전 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본당에서만 판매하던 물품을 타본당에서도 판매를 하자 어느 본당 신부님께서 공지사항에 우리 본당 신축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물건 판매에 많이 협조하라고 말씀하셨단다. 며칠이 지난 뒤 그 말씀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많은 헌금을 들고 나를 찾아왔는데 돈보다도 믿음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할머니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돈이란 좋은 데 사용하면 또 다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던데요!”

## 소리

### 그게 먼 소리여!

당국은 문규현 신부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평양 방문인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입이니 탈출이니 하는 법률용어가 낯설기만 할 뿐이다. 법률적인 구성요건이야 어떠한 잠입(潛入)이란 낱말의 뜻은 ‘남몰래 숨어 드는 것’을 의미하니, 우리로서는 더욱 답답할 뿐이다. 사제가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잠입을 했다는 말인가?

엇그제 퇴임한 노(老) 사목회장을 만났다. 약주 한잔 하자는데 뜻이 통하자. 그 노회장은 교우집 안 내를 자청하고 나섰다. 두 집이나 헛탕을 치고 골목길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찾아낸 집은 교우집이었다. 아무데면 어찌라 싶으면서도 조금은 불만이었는데, 그 지역이 시 변두리임을 생각하니, 노회장의 사려깊음에 다리품을 판 일이 나쁘게 생각되지만도 않았다. 자리를 잡고나니 문득 문규현 신부 생각이 났다. 그래, 사제가 목자 없는 양들을 챙기는 일이야말로 마땅하고 또 마땅한 책무가 아니더냐! 그런데 그걸 꼭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옳단 말인가? 이게 헛별정책이란 말인가?

서학동 성당 벽에는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신부님 보내주세요」라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염원을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찡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진해서 당국에 알린 문규현 신부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나란데, 아이들의 소박한 소망이 할아버지께 전달이나 될지 모르겠다. (甲)

### 숲정이 산책



“먹고 나서 단식하네……”



1998년 성령의 해

“좋은 이웃 되어주기-서로 돕고 나누기”

둘러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그림 공부를 위해 근처 도시로 나갔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그림 공부는 커녕 먹고살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둘러의 친구가 “우리 그림공부를 교대로 하자. 네가 재주가 더 뛰어나니까 먼저 공부를 시작해라. 그림 나는 일을 하면서 네 뒤를 대주마.” 하고 건의했다. 그리고는 어느 식당 주방에 취직해 둘러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다.

둘러는 미술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몇 년 후에는 개인전을 가질 만큼 성공을 하였고, 화단의 인정을 받아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림 판 돈을 손에 쥔 둘러는 즉시 그의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다. 이제는 친구가 공부를 할 차례라고 기뻐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둘러가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친구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둘러의 성공 소식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 순간 둘러는 친구의 손이 심한 노동 때문에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러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의 거칠어진 “기도하는 손”을 한 쪽의 그림으로 남겼다. 그 유명한 그림, “기도하는 손”에 얽힌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에 버금가는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나눔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말과 함께 IMF 체제 아래 들어간 이후, 또 지난 여름의 잔인한 폭우를 겪으면

서 풍성하게 들었다. 미역과 전복을 따며 살아가는 가난한 완도본당 신자들이 부자동네(?)인 서울교구의 수해 입은 교우들을 위해 2차 헌금을 하여 성금을 보내왔는가 하면, 퇴출은행의 직원이 더 안타까운 사람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었다. 우리도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면서도 굶고있는 북한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발을 벗고 나서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는 한 학생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무려 500여명이나 된다. 많은 본당에서 일터 잃은 교우들을 돕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였고, 사랑의 쌀통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 어려움이 있기에 “서로 돕고 나누는”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이런 마음이 더욱 꽃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희년의 기쁨은 단지 어느 특정한 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외적 행사에 한정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서로 돕고 나누어 내가 너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던 갖가지 장벽들이 무너질 때, 희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희년의 기쁨은 우리 마음안에 이미 흐르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마태 11, 5; 루가 7, 22 참조) 오셨음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에 어쩌 더 큰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제삼천년기 51).

기쁨과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3개월 3일 남았습니다.

도·농 일치와 나눔을 위한 추석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촌의 신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건어물, 가공식품을 판매합니다.

\* 햅쌀, 쇠고기, 각종과일, 잡곡, 미역, 굴비, 참기름, 제수용품, 선물용, 양말 외

일시 : 10월 2일~4일 장소 : 중앙성당 주최 : 전주교구 농민회 후원 :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미사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서학동 성당에서 있습니다.

<p>토탈 패션</p> <p><b>I M A<sup>+</sup></b></p> <p>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물</p> <p>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테레사) 객사뒤 K.F.C 앞</p> <p>☎ (0652) 231-7853</p>	<p><b>LG에어컨 파격세일</b></p> <p>15~26% 할인+6회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냉난방기 상담 환영</p> <p>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p> <p>☎ (0652) 241-2000</p>	<p><b>성심여중 · 고</b></p> <p><b>총동문회</b></p> <p>일시 : 98년 10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성심학교 동창회관 회비 : 10,000원 연락처 : (0652) 232-0134, 2517</p>	<p><b>동전주주유소</b></p> <p>〈품질좋은 쌍용〉 성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옆)</p> <p>환연옥(요셉) · 윤성자(수산나) ☎ (0652) 245-5123, 5134(요일상사) (휴) 016-606-5134</p>
---	---	---	---



### 앤소니 드 멜로 신부의 저서 인쇄·판매 중지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8월 23일 인도 예수회 소속 앤소니 드 멜로 신부(1931~1987)의 저서가 신앙 내용을 상대화하고 사람들을 종교 무차별주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한국 주교회의에 보내왔다. 신앙교리성은 서한에서 이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그의 저술이 더 이상 인쇄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또는 판매 전에 공지와 해설을 책 속에 삽입하도록 요청했다.

앤소니 드 멜로 신부는 인도의 예수회 사제로서, 그의 수많은 저서들이 전세계에서 번역됐다. 그동안 그의 저서들은 짧은 형식의 이야기를 통해 동양지혜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의 초기 저술에서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보이면서도 그리스도교 영성의 노선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후기의 일부 저서에서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형태가 없는 신에 대한 직관으로 바꾸고, 하느님을 순수한 공(空)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적 실재라는 사상이 깊게 배어있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범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위격적 본질은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위대한 스승일 뿐이지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가능해진다.

드 멜로 신부의 저서에 따르면, 하느님이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믿음이나 신앙고백은 인간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신앙교리성은 이러한 드 멜로 신부의 주장들이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의 저술에 대해서 인쇄·판매 중지 조치를 했으며, 우리 교구에서는 공문(제98-54호)를 통해 각 본당에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공지를 전달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 소개된 앤소니 드 멜로 신부의 저서들

1. 『개구리의 기도』 - 제1권 - 이미립 옮김/분도출판사/1993년 발행/293면
2. 『개구리의 기도』 - 제2권 - 황애경 옮김/분도출판사/1995년 발행/215면
3. 『꺼져 나십시오!』 - 깨달음의 영성 - 김상준 옮김/분도출판사/
4. 『일본 헛소리』/정한교 옮김/분도출판사
5.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김상준 옮김/분도출판사
6. 샘/분도출판사 7. 종교박람회/분도출판사 8. 일본지혜/분도 출판사
9. 뱃돌/계성출판사
- 10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 47가지 묵상기도 방법 - 이미립 옮김/성바로출판사/176면

### 교구·제 단체 소식

1. 레지오 단원교육 : 9월 27일(월), 시기동 성당
2. 푸른군대 일일피정 : 10월 1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3. 묵주기도 성월 피정 : 10월 13일(화),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강사 - 왕수혜 신부, 주최 -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 협의회
4. 주묵성 신부 전화번호 : (02) 792-5502
5. 장상원 신부 전화번호 : 사제관 (053) 981-7281, 교육관 980-3792, 성당 981-1064
6. 9월 20일자 후보 교구소식에 실린 봉동성당 사무실 전화번호를 고산성당으로 정정합니다 : (0652) 262-4721
7.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 연도, 11시 - 미사, 소리개재 묘지

### 요십이 (1312) 김병오



화산동 성당 신축공사비 마련 바자회  
**선녀머의 열린 한마당 잔치**  
전교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회, 공연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 98. 10. 15(목)~10. 18(일)  
장소 : 화산동 성당  
☎ 221-9842~3

**경로수녀원 성소모임**  
10월 10일(토) 오후 4시~  
11일(일) 오후 5시  
주제 : 응답  
장소 : 소양해월리 경로수녀원  
문의 : (0652) 243-1440

**전 주 수 산 (주)**  
각종 생선 도·소매  
전주 농수산 도매시장  
중매인 55년  
이 춘 현(울리아)  
☎ 사) (0652) 251-2455  
자) (0652) 277-7682

高品格 웨딩  
**메종프랑세스**  
개업 1주년 기념  
다이어트 50% Sale  
웨딩드레스+턱시도=250,000원부터  
☎ (0652) 251-1210, 1211

**김제원광한의원**  
한의학박사 이순호(루치아노)  
정연숙(루치아)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앞  
☎ (0658) 547-3260  
546-3200

**김제치과 의원**  
송기삼(골롬바노)  
김성자(골롬바)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 (0658) 544-2875~6  
FAX (0658) 544-2876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지금의 고통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 3, 5)

1. 모임: ① 전례부, 테니스회 -교동미사 후 ② 청년회 -저녁미사 후
2. 전신자 불림대회: 오늘 후 2시, 63불림장
3. 유아세례: 29일(화) 저녁미사 후
4. 참회예절: 30일(수) 저녁미사 후
5. 성서와 교리교실: 30일(수) 후 8시
6. 레지오 단원교육: 30일(수) 효자동성당
7. 축! 영명축일: 10월 1일(목) 소화대례사 수녀님 축일
8. 미사시간 변경: 10월 1일부터 새벽미사 6시, 저녁미사 7시
9. 추석 합동 위령미사: 5일(월) 전 6시, 후 7시 미사봉헌 바람.
10. 성지순례: 18일(주일) 청주교구 연풍성지, 참가비 - 10,000원  
접수바람
11. M.E 간부: 대표-김상진(바로로)부부, 총무-이계현(그레고리오) 부부
12. 바자회 티켓구입: 신축성당 돛기위해 사무실에서 구입 요망함
13. 교통법규 지키기: 성당앞에서 교통법규를 꼭 지키시길
14. 특별헌금: 금주봉헌자 1명 300,000원
15. 교무금 봉헌: 교무금을 월납제로 봉헌해 주십시오.
16. 금주 전례: 해설-박영춘, 독서-한종일(가시미로) 부부  
봉헌-최재춘(요한) 가정
17. 차주 전례: 해설-이점열, 독서-김종현(바로로) 부부  
봉헌-허기남(안드레아)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615,530원 □ 교무금: 1,707,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무실 2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274-9260 수녀원 274-9262 사목회장 유춘웅

◎ 본당 설립 10주년 행사와 견진자들을 위하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애령회, 방주회 -공식미사 후, 1회의실  
② 청년공동체 -저녁미사 후, 4회의실
2. 주간 모임: ① 그린청년불림회 -28일(월) 후 7시, 1회의실  
② 엠마우스회 -30일(토) 후 7시, 1회의실
3. 차주 모임: 요아킴회, 안나회 \* 차주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4. 본당 설립 10주년 및 견진식: 10월 11일(일) 전 10시, 해성학교  
① 견진교리 -27일(오늘)~10월 2일(금) 후 7시 30분~10시  
\* 첫째날 -27일(오늘) 저녁미사 후(후 8시 20분)  
\* 미사시간 변경 -10월 1일(목) 전 6시로 변경  
② 견진 특별교리 -10월 9일(금)~10일(토) 후 8시, 성당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월 5일(월) 전 10시  
\* 선영을 위한 정성어린 미사예물들 사무실에 접수바람
6. 99년도 월례광고 내실 본 접수바랍니다.
7. 전입가정 환영: ① 박명수(베드로) T. 251-9515, 신일A 104/1101  
② 정해경(베로니카) T. 277-5519, 남양A 202/304
8. 독서: 금주(새벽) -김종완, 여성순, 차주 -이성기, 정성옥  
(공식) -박수복, 정금순, 차주 -김홍석, 서정희
9. 미사 안내: 금주-셋별의 모후Pr., 차주-인자하신 모후Pr.
10. 주차 안내: 금주-화해의 모후Pr., 차주-다윗의 담Pr.

□ 지난주 봉헌금: 1,819,800원 □ 교무금: 2,958,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무실 287-0441 주임신부 박기준  
수녀원 281-0441 사목회장 최공열

◎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선포하는 용머리 공동체

1. 금주 모임: 요세회, 사라회,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① 사목회 -7일(수) 후 7시 30분  
② 성모회, 성심회 -7일(수) 미사 후  
③ 구역(반)장 -9일(금) 미사 후
3. 성지순례 신청마감: 9월 30일까지, 장소-연풍성지, 회비-만원  
학생-오천원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미리 신청바랍니다.
5. 성서 공부: 매주(금) 후 2시 30분~4시
6. 예비신자 교리: 화요일(부활 영세) 후 8시 -신부님반  
목요일(성탄 영세) 후 8시 -수녀님반
7. 불성체: 10월 1일(목) \* 신청하세요.
8. 성체 강복: 10월 2일(금) 후 7시 30분
9. 신축헌금 재신립 감사합니다: 방세창(바로로) 200만, 김정철(바로로) 200만, 이경애(마리아) 20만, 김경태(아네스) 5만, 이준구(알로이시오) 10만, 유유중(마테오) 30만, 박금규(마리아) 50만, 송영순(요안나) 50만, 박경옥(루피나) 100만, 윤재춘(요세) 100만, 이오철(하상바로로) 60만, 익명 50만 합계-875만원 누계-1,275만원
10. 차주 전례: 해설-오은표, 독서-김해임, 강준철
11. 청소년사: 5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1,292,000원 □ 교무금: 1,883,000원

**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서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강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884,410단  
◎ 축! 영명: 강호(가브리엘)신부님 \* 축하식-공식미사 후

1. 금주 모임: ① 요세회 -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회 -2일(금) 10시미사 후
2. 추석 합동미사: 먼저 가신 선영을 위하여 미사예물을 정성껏 봉헌할  
시다. \* 미사시간 -전 6시, 10시 30분
3. 미사시간 변경: 10월 6일(화)부터 저녁미사 → 후 7시
4. 멀치판매: 7,000원, 12,000원, 13,000원
5.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1,710,000원(8세대)
7. 예비신자 교리: 화요일 후 8시, 목요일 후 8시 -신부님반  
화요일 전 10시, 목요일 전 10시 -수녀님반
8. 축! 혼인성사: 오늘 12시 30분, 본당  
신랑-홍경만, 김정자의 장남 명현,  
신부-강진상, 정병순의 장녀 수영
9. 차주: 천주의 도친Cu., 성소후원회, 자모, 성심회, 울뜨레아
10. 금주 전례: 해설-박해숙, 독서-여태구, 정현주  
봉헌-유영균, 강선화 부부
11. 차주 전례: 해설-변효석, 독서-권오상, 허선영  
봉헌-최규화, 강선화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17,350원 □ 교무금: 2,809,000원

**화신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 추석 합동 위령 미사예물들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 성전신축헌금 신립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구역(반)장회, 성모회-낮미사 후  
② 바자 음식품평회 -낮미사 후
2. 예비신자 교리: 성탄반 -30일(수), 10월 1일(목) 후 8시
3. 성가연습: 10월 2일(금) 후 8시
4. 차주 모임: ① 꾸리아 -전 9시  
② 애령회, 울뜨레아 -낮미사 후  
③ 사목회 -10월 3일(토) 후 7시 30분  
\* 군인주일 -2차헌금
5. 청소년 봉사: 10월 3일(토) -결혼하신자의 모후Pr.
6. 폐품 정리: 10월 3일(토) -황금군전Pr.
7. 화단정리: 10월 3일(토) -성조들의 모후Pr.
8. 금주 전례: 새벽-곽순옥, 낮-김영중, 저녁-이영숙
9. 차주 전례: 새벽-유희정, 낮-홍정희, 저녁-정인자
10.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바자회 준비에 참여합시다:  
①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매주 금요일 후 8시  
② 분과위원회 모임 -수시  
③ 바자회 티켓판매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요망

□ 지난주 봉헌금: 979,670원 □ 교무금: 945,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690,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건

◎ 올해는 본당의 정한 「선교 실천의 해」입니다.  
쉬는 교우 회두 권면, 예비신자 인도, 이웃사랑 실천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합시다.

1. 금주 모임: ① 전례해설단회의 -27일(일) 10시 미사 후  
② 복음화추진위원회 -27일(일) 10시 미사 후  
③ 꾸리아 -30일(수) 전 10시 ④ 사목회 -10월 2일(금) 후 8시  
⑤ 성모기사회 -10월 3일(토) 전 10시
2. 성지순례: 10월 18일(일), 연풍성지, 참가비: 일반-만원, 학생-  
오천원, 참가신청 -각구역장 또는 사무실
3. 성서 교리교실 개강: 29일(화) 매주 (화) 전 11시, 후 8시
4. 선교 교육: 30일(수) 후 7시~10시, 강사-광주 세나투스 단장  
주제-선교를 이렇게 합시다. \* 레지오 단원 및 전신자
5. 쉬는 교우 가정방문: 10월 1일(목) 후 7시부터, 효자주택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전 6시, 전 10시 \* 미사예물 -사무실에 접수
7. M.E 모임: 27일(일), 공식미사 후
8. 전입가정 환영: 정효영(안토니오), 효자동 1가 566-8  
임형수(세자요한), 쌍용A 106/505
9. 이웃사랑 기금: 15일~20일까지 2,060,000원 \* 감사드립니다.
10.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쌍용2A 구역

□ 지난주 봉헌금: 1,303,030원 □ 교무금: 2,189,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시다!”